

**모든 성취에 대한 의식이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흔들림 없는 단계를 경험함으로써 삶 속에서 해방되어라.**

오늘 행운의 공여자인 아버지는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고 복 있는 그의 자녀들을 보고 있다. 신 자신이 각 자녀의 행운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영혼들은 어차피 항상 신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지만, 신 자신이 지금 너희 자녀들을 칭송하고 있다. 너희들은 꿈에서라도 너희의 행운이 것처럼 고귀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이미 창조되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신이 그들을 창조했다고 말하기는 해도, 그들은 신도 모르고 그의 피조물도 모른다. 너희들 복 있는 자녀들은 각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너희가 쉬바의 가문에 속하는 브라마 쿠마르 또는 브라마 쿠마리라고 말한다. “우리는 밥다다가 어떻게 우리를 창조했는가를 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든 성숙한 판다바나 샹티든, 만일 누구라도 너희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묻는다면 너희들은 뭐라 답하겠느냐? 너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너희가 아버지 쉬바에 의해 아버지 브라마를 통해 창조되었고, 그래서 너희가 신의 자녀들이라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신을 직접 만난다. 너희들은 그가 신이고 너희의 아버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 선생, 그리고 사트구루라고 말한다. 너희들 모두 이 도취감을 갖느냐? (모두가 박수를 쳤다.) 이제 한 손으로만 박수를 쳐라! 이제 이 연습이 나이든 이들에게도 가르쳐져야 한다. 자녀들이 행복한 것을 보며 밥다다도 또한 행복 속에 그네를 타며 끊임없이 ‘와! 나의 고귀하고, 복 있고, 특별한 영혼 하나 하나! 너희들은 아버지의 형태에서 신의 부양을 경험한다. 이 신의 부양은 전체 사이클을 통틀어 이 브라민 생애 단 한 번 얻어지고, 그것을 통해 영혼들은 모든 성취의 화신이 됨을 경험한다. 신의 사랑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관계를 경험하게 해준다. 신의 사랑은 너희에게 자신의 몸체에 대한 의식을 잊게 해준다. 이와 더불어 그것은 또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이기적인 사랑을 잊게 만든다. 너희들은 신에 의해 그의 사랑으로 부양되고 있는 그런 복 있는 영혼들이다! 너희 영혼들이 얼마나 복이 많으면 아버지 자신이 그의 집을 떠나 너희들 신의 학생들을 가르치러 오겠는가! 너희들은 매일 아침 너희들을 가르치러 먼 나라에서 오는 그런 선생을 전에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그런 선생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아버지는 선생이 되어 매일 아침 너희들을 가르치러 오고, 그가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쉽다! 그것은 단 두 단어의 공부다: 너희들과 바바. 그것을 사이클이라 부르든, 드라마나 사이클 나무라 부르든, 그것은 모두가 이 단 두 단어 안에 들어 있다. 다른 공부에서는 너희의 머리에 엄청난 부담이 있는 반면에 아버지의 가르침에서는 너희의 머리가 가벼워진다. 뭔가가 가벼워지는 것의 징표는 그것이 높이 난다는 것이다. 가벼운 것은 언제나 저 위에 있다. 따라서 이 공부를 통해 너희의 마음과 지각은 상승 단계를 경험한다. 따라서 너희의 머리가 가벼워졌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세 세상 모두의 지식을 받는다. 전체 사이클 내내 누구라도 그런 공부를 한 다른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은 전에 그런 선생을 본 적이 있느냐? 따라서 이것은 행운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 다음, 너희들은 사트구루에게서 너무나도 고귀한 지시(슈리마트)를 받기 때문에 “나는 무얼 해야 하는가?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등의 모든 의문들이 끝난다. “나는 무얼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나?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모든 의문들에 대한 답은 “아버지를 따라라!” 라는 단 하나의 표현에서 얻어진다. 육신의 형태 안에서의 너희의 실질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아버지 브라마를 따라라. 무체의 단계에서 몸 없이 되는 데는 아버지 쉬바를 따라라. 밥과 다다 둘을 모두 따른다는 것은 모든 의문들을 끝내고 슈리마트를 따름을 의미한다. 이것이 어려운가? 뭐라도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은 그저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 자신의 머리를 사용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대등해진다는 것은 아버지를 따름을 의미한다. 이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쉽다, 그렇지 않느냐? 30년 이상을 바바와 함께 있었던 자들은 손을 들어 보아라! 앗차, 너희들은 30년 동안 어려움을 느꼈느냐 아니면 쉬웠느냐? 자, 좀 보아라. 바바와 함께 30년 동안 있었던 자들조차 그것이 쉬웠다고 느꼈다. 그러니 나중에 온 자들에게는 그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쉬운가? (날씨가 매우 더워서 모든 사람에게 화려한 부채가 주어졌다.) 그것은 좋다. 부채의 색깔과 화려함이 아주 아름답다. (모두가 부채를 흔들었다.) 이 장면은 아주 좋다.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이 그룹의 새로움이다. 이것은 또한 TV에도 녹화되고 있다. 너희들 모두가 여기로 달려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밥다다는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축하한다. 유한한 구루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느냐? 하나 아니면 열 개;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매일 사트구루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너희들은 그런 구루를 본 적이 있느냐? 없다, 그렇지 않느냐? 오직 너희들만이 그런 구루를 보았고, 너희들은 사이클마다 그를 보았다. 따라서 끊임없이 너희의 행운의

성취를 너희 앞에 간직해라. 그것을 지각 속에 넣어 갖고 있지만 말고, 그것이 나오게 해라. 모든 것을 안에 집어넣어 갖고 있는 너희의 산스카라를 변화시켜서 이것이 나오게 해라. 너희의 성취의 목록을 지각 속에 꺼내 갖고 있어라. 성취의 목록이 나왔을 때는 어떤 종류의 장애도 너희들을 공격할 수 없다. 모든 장애들은 단순히 들어가 버릴 것이고, 성취들은 나와 있을 것이다.

어떤 자녀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몹시 애를 쓰거나 투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요가를 하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영혼의식이 되는 대신 육체의식이 된다는 말을 들을 때 밥다다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나? 너희들은 너희의 행운의 성취를 의식 속에 간직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상기시켜 줄 때 너희들은 언제나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노력은 매우 쉽다. 너희의 성취가 나와 있게 해라. 너희의 의식 속에 너희가 브라민이 된 순간부터의 행운을 간직해라. 요동하지 말아라! 흔들림 없이 있어라. 왜냐하면 마운트 아부에 있는 너희의 기념물이 무엇이나? 아찰가르(안정의 집)이나 아니면 할찰가르(요동의 집)이나? 무엇이나? 아찰가르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누구의 기념물이나? 너희들의 기념물이다, 그렇지 않느냐? 미묘한 노력의 길이 어렵다고 느낄 때, 또는 너희의 지각이 몹시 요동칠 때 너희의 기념물을 의식 속에 불러와라. 너희 자녀들은 종종 지식의 요점들을 말한다: “나는 영혼이다! 이것은 드라마다! 이것은 그저 장애에 불과해! 그건 주변풍경일 뿐이야!” 비록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식을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요동한다. 너희들은 요동하면서 동시에 지식을 말한다. 너희가 흔들림 없게 될 수 없는 지각의 상태일 때는 마두반의 아찰가르를 기억해라.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고, 미묘하지 않다. 그것은 너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기념물은 할찰가르가 아니라 아찰가르다.” 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밥다다는 올해를 너희 자녀들 모두의 해방의 해로서 축하하고 싶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손을 들라고 했을 때 너희들 중 일부는 손을 들고 다른 이들은 들지 않고, 그래서 안 된다. 아니다. 모든 이가 대단한 행복을 가지고 박수를 쳐야 한다. (모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좋다, 이제 너희들은 박수를 쳤고, 따라서 이제 좋다. 그러나 밥다다는 너희가 올해 말에 가서도 이만큼 크게 박수를 치는 것을 보고 싶다. 너희들은 지금 박수를 쳤고, 그것은 좋다. 그러나 그 때에 가서도 박수를 쳐라. 그 때에도 박수를 치겠느냐? 보아라, 너희들은 양손으로 박수를 쳐서 바바를 기쁘게 했다. 그러나 새해 1월 18일 - 브라마 바바가 그의 몸에서 자유로워진 날 - 1월 18일에 밥다다는 너희가 해방의 해를 축하했는지 또는 그저 그에 관해 생각만 했는지에 관해 너희에게 다시 손을 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저 그것을 축하해야 한다는 생각만 계속하지는 않았겠지? 너희들은 그것을 실질적인 형태로 옮겼느냐? 아니면 그에 관해 생각하면서 끝까지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느냐? 밥다다는 이 결과를 보고 싶다. 이 결과를 보여 주겠느냐? 앗차, 너희들은 기억하겠지? 너희의 성취들을 너희 앞에 간직해라.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과 함께 또한 아버지가 너희에게 준 것들이 나오게 하여라. 그가 너희들을 무엇으로 만들었고, 너희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올해 후에는 밥다다가 너희 각 자녀들을 해방된 삶의 단계에서 볼 것이다. 미래에는 너희가 삶 속에서 해방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해방된 삶의 산스카라가 나오게 해야 한다. 지금부터 끊임없는 카르마 요기, 끊임없이 쉬운 요기, 그리고 끊임없이 해방된 영혼의 산스카라를 너희의 경험 안으로 가져와라. 왜냐? 밥다다는 이미 시간의 변화가 너희 세계 변화자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자연원소들은 너희들을 위해 승리의 화환을 들고서 원소들의 주인인 너희 영혼들을 부르고 있다. 시간은 승리의 종을 들고서 언제 종을 울려야 할지를 알기 위해 너희들 미래 세계의 주권자 영혼들을 보고 있다. 신봉자 영혼들도 또한 숭배받을 가치 있는 그들의 신인 영혼들이 그들에 대해 기뻐하며 그들에게 해방의 축복을 줄 날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 불행한 영혼들은 외쳐 부르면서 그들의 슬픔을 없애고 행복을 줄 영혼들이 언제 드러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들 모두가 너희들 모두를 기다리며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오 자비로운 세계 시혜자 영혼들아, 그들의 기다림을 끝내주어라! 그들 모두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 모두가 해방될 때, 모든 영혼들, 원소들, 그리고 신봉자들이 해방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되고, 공여자 마스터가 되어 해방을 기부해라! 이제 세계 변화를 위한 책임의 왕관을 쓰는 영혼이 되어라.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아버지의 조력자들이다. 너희들은 자비를 느끼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들의 슬픔의 파도를 너희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느냐? 오 세계 변화자 영혼들아, 이제 너희의 책임의 대관식을 축하해라. 너희들은 많은 행사를 개최했지만 그것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너희들은 그저 황금 촛니(스카프)와 왕관을 걸치고 그 행사들

을 축하했다. 밥다다는 그것에 대해서도 기뻐했다. 단순히 춘니를 달고, 화환을 걸치고, “친디(이마 위에 다는 사슬에 매달린 툴라)”를 매는 것을. 판다바들은 터반을 왕관처럼 걸쳤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축하하는 것은 너희의 책임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들은 행복했다; 아버지는 더 행복했다. 그러나 미래는 무엇이나? 너희들은 춘니와 툴라를 장롱에 치워둘 것인데, 그것으로 축하하는 것이 전부냐? 아니다! 이 춘니는 너희의 황금 단계의 상징이다. 그걸 그저 장롱에 치워버리지 말고 너희의 마음과 의식 속에 간직해라. 축하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과업에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이것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너희들은 춘니를 걸치는 것이 좋았느냐? 좋았다. 밥다다조차도 그것이 아주 좋았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이제 영원히 협조적이 되어라.

올해에 밥다다는 신호를 주었고, 이를 위해 연말에, 1월 18일(1999년)에 우리는 “해방의 해” 행사를 축하할 것이다. 너희들 중 박수를 쳤던 사람들은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 느끼느냐? 그러면 바바에게 너희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뭘 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은 그런 것들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너희들은 단연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내가 뭘 할 수 있나?”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런 말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밥다다는 앞에서도 너희에게 설령 백 개의 히말라야 산보다 더 큰 장애에 부딪힌다고 해도 너희들은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해 주었다. 너희들은 패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단연코 대관식과 “해방의 해”를 축하할 것이다. 밥다다는 매일 너희들의 차트를 볼 것이다. 여기를 떠나자마자 기차 안에서 “어떻게 된 건지 난 모르겠다.”라고 말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집에 돌아가자마자 황새와 백조의 싸움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 저러한 일이 그저 일어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바바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바바는 너희의 편지를 폐지 바구니에 넣어버릴 것이다. 바바는 이런 것을 아무 것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결단력 있는 생각을 가져라. 결단력이 있는 곳에서는 너희가 성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 모두 결단을 내렸다, 그렇지 않느냐? 선생들은 손을 들어 보아라! 많은 선생들이 있다. 너희들 모두 센터들을 비워두고 왔느냐?

너희들 모두 지금 당장 몸 없이 되라는 지시를 갑자기 받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뭔가 격동이 일어나겠느냐? 왜냐? 마지막 순간의 이 연습은 너희들이 우등으로 합격하게 해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밥다다는 너희가 일초 만에 모든 것에서 벗어나 몸 없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바바가 훈련을 실시했다.) 앗차.

온 사방의 지극히 복 있는 영혼들에게, 신의 부양에 권리를 가진 영혼들에게, 신의 가르침에 권리를 가진 자들에게, 사트구루인 신에게서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들에게, 끊임없이 결단력을 가짐으로써 성공을 얻는 자들에게, 한결 같고 흔들림 없는 योगীদের에게, 세계 변화를 위한 책임의 왕관을 쓰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모든 성취들을 드러난 형태로 경험하는 자들에게, 그런 특별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축 복:** 축복의 공여자인 너희 영혼들은 화 난 영혼들에게 자비의 시원한 물로 미덕을 기부해라.

화의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너희 앞에 와서 너희를 모욕하고 중상할 때는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을 가지고, 너희의 태도와 단계를 통해 그 영혼에게 미덕을 기부하고 관용의 힘을 축복으로 주어라. 화 난 영혼은 외부의 영향하에 있고, 따라서 그런 영혼을 자비라는 시원한 물로 식혀주어라. 이것이 축복의 공여자인 너희 영혼들의 임무다. 살아 있는 형태에 있는 너희들이 그런 산스카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신봉자들이 너희의 살아 있지 않은 이미지를 통해 축복을 받는다.

**슬로건:** 기억을 통해 모든 보물들을 경험하는 자들은 힘으로 채워진다.

\*\*\* 움 샐티 O M S H A N T I \*\*\*